

‘주님이 보실 땐 어떤 게 이단(異端, *heresy*)인가?’

### 주님이 보실 땐 어떤 게 이단(異端, *heresy*)인가?

<sup>13</sup>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sup>14</sup>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피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sup>15</sup>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창4:13-15)

※ 위 본문 중 앞 두 구절, 13, 14절은 지난 주 이미 다루었으므로 오늘은 15절을 중점적으로 살피겠습니다. 13, 14절을 함께 읽은 것은 가인 이야기의 연속성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그 내용의 예사롭지 않음으로 인해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 다루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지금

까지 우리는 가인은 안 좋은 사람입니다, 괜히 그 아름답고 완전한 태고교회를 흔들고 분탕질하는 사람들이다, 이상한 교리, 즉 사랑에서 신앙을, 그래서 신앙과 체어리티(*charity*, 이웃 사랑, 기부)를 분리하는 교리를 가지고 교파를 세우고, 교단을 만들어 교회를 쪼개는 나쁜 사람들이며, 그래서 체어리티를 뜻하는 아우 아벨을 들에서 쳐죽였다 묘사된 사람들이다, 태고교회 때 일어난 참 안타까운 첫 번째 이단(異端, *heresy*)이요, 4장 후반에 이어지는 모든 이단들의 원조, 뿌리가 된 사람들이다 등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엔 이런 이단은 당연히 처음부터 그 싹을 잘라냄으로써 다시 교회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교회로 하여금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히려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정말 이상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이 이런 이단을 보호하시고 두둔하시다니요?

그래서 오늘 중점 본문인 15절을 통해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이 보실 땐 어떤 게 이단인가?’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주님은 이런 가인과 같은 이단을 왜 두둔, 보호, 보존

창4:15, AC.392-396

‘주님이 보실 땐 어떤 게 이단(異端, *heresy*)인가?’

하시나?’ 하는, 어쩌면 좀 쉽지 않은 주제들을 그러나 나름 깊이 좀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인 ‘주님이 보실 땐 어떤 게 이단인가?’ 하는 질문이요, 주제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단으로 알고 있는 가인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친히 두둔, 보호, 보존하시니 말입니다.

이 ‘이단’에 대한 이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며, 마침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원초적으로 다루고 있어 검사 좀 깊이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이 이단의 문제는 갑자기 오늘 우리 시대에 등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까마득한 태고 시대, 인류의 처음 출발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래서 창세기 겨우 4장인데 벌써 등장한다는 사실이 참 놀라우며, 아벨에 대한 기록보다 가인에 대한 기록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즉 주님편에서 보면 이단의 역사, 주님께 소위 이단질을 일삼은 반역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각 교단, 교파 자기네 소속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름의 이단판

정기준들을 가지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어쩌면 주님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관점, 천국 관점이 아닌 지상 관점으로 무슨 이단판정 놀이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즉 주님 보실 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7:3)

하시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닐까... 만일 실상이 그런 거라면, 우리는 얼마나 참 주님과 천국 천사들이 볼 때 딱한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이단! 이단!’ 하다가 정작 혹시 주님으로부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8:7)

하시의 말씀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7:2)

하시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주님이 보실 땐 어떤 게 이단(異端, *heresy*)인가?’

오늘 주제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단 판정을 교리를 가지고 하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즉 이웃 사랑, 체어리티로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신앙하고, 그 신앙을 체어리티의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통, 즉 아벨의 사람들이지만, 사랑 따로, 신앙 따로인 사람들, 체어리티의 삶을 살지는 않으면서도 신앙 생활은 또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단, 즉 가인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이단이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너무 어이없는 년센스 질문이지요? 네, 그렇다면 다른 질문! 여러분, 천사들이 이려고 있을까요? ‘음... 당신은 개신교 장로교인이 아니므로 정통이 아니시군요!’, ‘음... 당신은 개신교 감리교인이 아니므로 정통이 아니시군요!’, ‘음... 당신은 개신교 침례교인이 아니므로 정통이 아니시군요!’ 등등...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함인지 눈치채셨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각 교단과 교파로 나뉘어 서로 우리야말로 정통이다 하고 앉아 있는 이런 기준은 지상에 국한된, 더 나아가 우리 개신교에 국한된 기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범주를 더 넓혀 정교회다, 카톨릭이다, 개신교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통이요, 너희는 이단이다 하는 이런 건 오로지 지상에서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일뿐 그것이 천국에서도 통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도저히 기독교라 할 수 없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등 이들은 기독교(基督, ‘그리스도’의 音譯),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이용, 그것을 교묘히 재해석 및 비틀어 결국 해당 무리들의 교주를 숭배하고, 구성원들을 미혹케 하여 망하게 하는, 소위 ‘**혹세무민**’(惑世誣民)의 무리들로서, 그 뿌리 및 목표, 목적이 지옥인 이들까지 포함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각 교단마다 이단심판(판정)위원회 같은 데를 두어 긴장의 끈을 놓치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무리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이런 명백한 이단들뿐 아니라 타종교인들, 심지어 아프리카 오지 원시종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마음에 심판 및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사연이 있어 저런 분들 앞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뚜껑이 확 열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창4:15, AC.392-396

‘주님이 보실 땐 어떤 게 이단(異端, *heresy*)인가?’

데요,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악한 기운, 어두움의 기운이 자신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이단 퇴치 운동을 하시다가 그만 심성이 단단해지고 악해져 돌덩어리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 지구 위 온 인류 중 기독교인, 그중에서도 개신교인은 정말 얼마 안 된다는 걸 말이지요. 열손가락 중 물어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요? 주님 편에서 보면 말입니다. 성경말씀의 빛바깥 어두운 데서 살아가는 저 대부분의 인류 역시 주님의 형상을 띠고 지음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니 말입니다. 어느 특정 교리를 굳게 붙들고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며 자신을 확고히 지키고자 하는 태도는 나름 바람직하여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 교리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주님보다 더 앞장서 구원 여부를 심판하고 하는 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유대인들의 선민사상과 뭐가 다른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리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특정 교리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안 하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공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

람이 개신교 집안 대신 골수 이단 집안에서 태어난 게, 오랜 타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게 그 사람의 선택 인가요? 어떤 사람이 자유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땅에서 태어난 게 그 사람의 죄인가요?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주님의 방법과 기준, 시스템은 온 우주적 유니버설한 방법이 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하지요. 이 이야기는 다소 다른 주제일 수 있어 나중에 기회되면 따로 다루지요. 정리하자면, 태생적으로 이단을 비롯, 타종교 안에서 성장,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교리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의 기준으로는 조금만 손보면 능히 천국 생활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 및 정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기준, 즉 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준은 교리가 아닌,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즉 체어리티를 실천하면서 형성된 속 사람의 어떠함이 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과 기준이 됩니다.

※ 방금 ‘조금만 손보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여 덧붙입니다.

사람은 사후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

‘주님이 보실 땐 어떤 게 이단(異端, *heresy*)인가?’

기 전, 먼저 그 준비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때 비기독교 배경을 갖고 오신 분들 중에서 천국 입국 대상이 되신 분들은 천사들을 통해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의 주 내용은 ‘천국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여러분이 세상에서 행한 선들은 모두 사실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선한 삶을 통해 사실은 주님과 이미 하나 되신 분들입니다.’인데, 놀랍게도 이 비기독교 배경을 가진 신참 영들은 이 가르침을 기쁘게 받으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 세상 관점으로 본 이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교리를 가지고 이단인지 여부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보시는 이단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생각하는 이단, 곧 천국에서는 어떤 게

이단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가인 같은 입장들이 이단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의 첫 태고교회는 흠없는 교회, 창세기 1장 거듭남의 풀코스를 온전히 거쳐 악령들이 떠나가고, 2장에서 안식 단계에 들어 천적(天的) 인간, 곧 천인(天人, *the celestial man*)이 된 교회입니다. 여기서 천적이라 하는 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게 사랑에서 나오는 상태, 주님은 사랑이시므로 결국 천적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았다는 것이지요. 천적인 사람은 신앙도 사랑으로 합니다. 즉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태고교회는 그래서 주님 사랑의 교회였고, 이웃 사랑, 곧 체어리티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었지요.

지상의 삶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천적인 것에 가장 근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여 부모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란 무엇인가?’, ‘부모의 정의 1. 뉘뉘뉘, 2. 뉘뉘뉘...’ 이런 식으로 가르친들 어린아이들이 알아듣겠으며, 그런 교육이 먹히겠습니까? 네, 어린아이들처럼 천진난만, 순진무구한 천적 존재들은 무슨 지식적으로는 잘 몰라

창4:15, AC.392-396

‘주님이 보실 땐 어떤 게 이단(異端, *heresy*)인가?’

도 그냥 사랑으로 부모를 따르지요. 무슨 어려운 말을 해도 대충 느낌으로 ‘아, 무슨 좋은 말인가 보다. 엄마 아빠를 사랑하라는 말인가 보다’ 하며, 그냥 사랑으로 다 이해해 버리고 맙니다.

태고교회 사람들은 일상이 이랬으며, 천국 천사들 또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태고교회 땐 하늘과 지상이 서로 교류하였고, 무슨 막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도 가끔 오셔서 저들을 가르치시곤 하셨지요. 이런 게 가능했던 건, 태고교회 사람들의 상태가 이노센트, 순진무구하여 천국과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지혜가 흘러들어와 머무르게 됩니다. 주님 지혜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바로 요셉의 바로 앞 꿈 해몽 및 그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 솔로몬의 지혜, 네 왕을 보좌한 다니엘의 지혜 등 그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건 그들이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천사들은 정말 지혜로운 존재들인데요, 그런 천사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었던 태고교회는, 그렇다면 그 태고교회 역시 얼마나 지혜로웠겠습니까?

이런 게 천적인 것이요, 이런 게 천국 상태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런 상태가 소위 말하자면 정통이요, 이와 같지 않은 일체가 다 이단입니다. 가인 같은 입장들이 이단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태고교회에서는 사랑과 신앙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신앙과 체어리티가 하나였는데... 아담교회의 자(子)교회라 할 수 있는 입장들, 곧 가인들이 일어나 모(母)교회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데 알고 보니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달랐던... 즉 사랑과 신앙을 따로 떼어 분리하려는 입장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입장을 조금 세게 풀어 설명하면, 주님을 1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신앙은 하는, 즉 주님에 대한 신비롭고 높은 지혜와 진리에 대한 지적 추구는 열심히 하되 삶은 따로 노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인들의 지적 추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지혜는 주님 향한 사랑이라는 그릇에만 담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지혜만 추구하는 자들은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걸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이 보실 땐 어떤 게 이단(異端, heresy)인가?’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4:12)

셨으니 <sup>40</sup>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22:37-40)

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의 입장에서 사랑 아닌 다른 동기로 무얼 시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바로 이단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이런 것이 천국에서는 이단이며, 천사들, 즉 천적 존재들은 이런 기운들을 만나면, 이런 입장들을 접하면 황급히 뒤로 물러납니다. 이웃 사랑은 지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 이웃 사랑인 체어리티의 삶은 외면한 채 구원 받기 위한 신앙 생활은 하겠다는 건, 그래서 넌센스인 것입니다.

<sup>31</sup>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sup>32</sup>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sup>33</sup>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sup>34</sup>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sup>35</sup>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sup>36</sup>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sup>37</sup>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sup>38</sup>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sup>39</sup>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sup>40</sup>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주님 말씀 몇 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14:21)

<sup>37</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sup>38</sup>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sup>39</sup>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

‘주님이 보실 땐 어떤 게 이단(異端, *heresy*)인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sup>41</sup>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sup>42</sup>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sup>43</sup>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sup>44</sup>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sup>45</sup>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sup>46</sup>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25:31-46)

어떻습니까? 이 양과 염소의 말씀 역시 그 속뜻은 겉 글자의 뜻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겉 글자의 뜻만으로도 주님이 거듭거듭 찾으시는 조건이 교리입니까, 아니면 이웃 사

랑, 곧 체어리티의 삶입니까? 이 말씀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기준이 개신교냐 천주교 혹은 정교회냐,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냐, 감리교 혹은 침례교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네 교리에 대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와 같은 무슨 확고한 신념인가요? 다 아니지요! 오직 체어리티의 삶을 실천한 속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속 사람의 기초 위에서 무슨 교단, 어떤 교파에 속해 살든지 그건 상관없지만 말입니다. 심지어 위양과 염소의 말씀을 보면, 그 대상이 ‘모든 민족’입니다. 무슨 기독교인만, 무슨 개신교인만 그 대상이 아니고 말입니다. 참 공정하지요? 주님의 대답은 오직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입니다. 체어리티가 받쳐주지 않는 교리 신앙, 그걸로는 결코 양의 자리, 즉 오른편에 설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참고로, 위 양과 염소 본문의 속 뜻은 주님의 선과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여섯 가지 태도와 그 유형에 대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지극히 작은 진리 하나를 말하며, 이에 대한 태도가 곧 주님에 대한 태도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보실 땐 어떤 게 이단(異端, *heresy*)인가?’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걸 보면, 이단에 대한 오늘 기독교, 개신교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 천국 천사들의 생각이 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겉과 속 중 겉만 보고 이단 판정을 내립니다. 즉 자기들의 교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속을 보십니다. 그 속이 사랑이면, 그래서 사랑 실천의 삶, 곧 체어리티의 삶을 살면 그는 이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가 기준인데 주님은 사랑, 곧 체어리티가 기준입니다. 주님은 아벨이 정교회인지, 카톨릭인지 아니면 개신교인지,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인지, 침례교인지 그런 건 관심 없으십니다. 단지 그가 체어리티의 삶을 살았으므로 그의 예배를 열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땅의 것, 곧 교리적인 삶, 체어리티의 실천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므로 주님의 입장에선 그런 예배는 도저히 열납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지요.

천국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개인과 개인, 일대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신성(神性, *the Devine*)인 선과 진리를 사랑하

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선을 체어리티로, 주님의 진리를 사랑에서 나오는 신앙으로 힘써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상의 삶을 통해 그 안에 신성이 충분히 축적되어 사후 넉넉히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물고기는 아가미 호흡을, 우리는 폐 호흡을, 사후 천국에서는 주님의 신성 호흡을 하기 때문이며, 천국 대기는 주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 사람이 생전에 주님의 신성으로 미리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사후 천국에서 천국의 대기를 호흡할 수 없어 그만 뛰쳐나오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속 사람의 상태가 천국 생활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 준비하신 유일한 기준입니다. 꼭 기억, 명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아우 아벨을 들에서 쳐죽이기까지 한 가인을 그러나 그의 이후 상태가 지옥과 같아짐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며, 두둔, 보호, 보존하시는 주님의, 많이 어리둥절하신 모습을 통해 두 가지

창4:15, AC.392-396

‘주님이 보실 땐 어떤 게 이단(異端, heresy)인가?’

중 하나인 ‘주님이 보실 땐 어떤 게 이단인가?’를 살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은 이런 가인과 같은 이단을 왜 두둔, 보호, 보존하시나?’입니다. 다음 주엔 이 두 번째 주제를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우리는 교리를 가지고 이단 여부를 판단하지만 주님은 삶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주님은 무엇을 판단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질서와 시스템에 맞는 사람은 모든 걸 누리지만 맞지 않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걸 우리 식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선을 행할 기회가 생기면 절대 외면하지 말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억지로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말이지요. 주님을 사랑하여 자원하여 하는 것만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 나눴던 여러 사례들을 다시 상기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케어리티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정 상황, 가령 임신부가 큰 캐리어를 끌고 육교를 건널 때, 한쪽팔을 다친 고등학생이 뿔 들고 가다가 넘어졌을 때, 어떤 여자가 애인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거리에서 맞고 있을 때, 어린 아이가 길 건널목에서 ‘저 좀 건너게 해주세요’ 할 때, 아빠를 잃은 아이가 한강 둔치 공원에서 엄마에게 아빠처럼 목마를 태워달라고 할 때, 어떤 외국 여자가 단지 피부빛만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을 때, 역시 어떤 외국인이 지갑을 툭 떨어뜨리고도 모르고 가거나 백팩이 활짝 열린 것도 모르고 가고 있을 때, 군복을 입은 군인, 혹은 젊은이가 한강 대교에서 뛰어내리려 할 때 등등...

이런 걸 보고도 외면하는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외면한 자들과 다를 바 없어 주님이 보실 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이단’은 도저히 천국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아멘, 주님을 사랑, 찬양하오며 ...

2022-07-10(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